

“비누 만들며 새로운 자아 찾았죠”

코로나19로 기본적인 손 씻기 등 생활 속 위생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다.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루트공방’은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수제 비누를 만드는 곳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근 대구병원에 비누를 기부하기도 한 루트공방의 우혜진 아로마테라피스트를 만났다.

산수동 ‘루트공방’ 운영 우혜진 씨

아들 아토피 치유 목적 천연비누 만들기 시작 코로나19 극복 위해 대구병원에 비누 기부도

공방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재료가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다. 공방의 거의 모든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1년 6개월째 루트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우혜진 씨는 아들의 아토피 때문에 처음 비누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아들이 사용할 비누를 만들어 보자는 게 시작이었지만 비누 만들기가 적성에 잘 맞았고, 산후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게 된 것도 이 일 덕분이었다고 전한다. 비누 만들기는 토시와 앞치마를 입고 미리 녹여진 대어젓가지를 오일을 주걱으로 잘 섞는 것부터 시작된다.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저어야 하고 오일마다 무게와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잘 섞지 않으면 분리되어 비누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후 섞인 오일에 가성소다를 넣는 교반작업이 진행된다. 가성소

다는 센 알칼리 물질로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고 가스와 연기가 발생하는 등 매우 조심하 다뤄야 하는 재료다. 미리 녹여진 가성소다를 오일에 붓자, 소다액이 바닥에 가라앉으며 오일의 색이 한층 탁해졌다. 다음 순서는 트레이스로, 주걱과 핸드블랜더를 동시에 이용해 오일과 소다액이 골고루 섞이도록 잘 섞어주는 작업이다. 트레이스가 끝나면 보습, 진정 등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정한 후 비누에 넣을 가루를 정한다. 각자의 피부타입에 맞는 비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루를 넣은 액체 비누는 주걱을 이용해 아래에서 위로 덩어리지 않게 잘 섞어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 섞이지 않으면 비누를 컷팅하는 과정에서 섞이지 않은 가루가 그대로 나타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천연 가루를 이용해 만든 천연 색소를 넣어 원하는 색상의 비누를 만들 수 있다. 앞의 모든 과정을 통해 완성된 액체 비누는 몰드에 부어 30도의 일정한 온도에 24시간 가량 놓아 건조시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단한 비

누가 된다. 특별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비누를 붓는 과정에서의 방식을 달리하거나 몰드에 부은 직후 얇은 막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물결 무늬 등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비누 만들기 체험은 다음날 공방으로 찾아와 건조가 완료된 비누를 직접 잘라 보면서 완성된다. 비누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비누의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5년째 비누를 만들고 있는 그녀는 코로나19를 위해 애쓰는 대구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근 직접 만든 비누를 병원에 보내 극복의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산 지 12년이지만 대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대구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던 지인과 기회가 닿아 참여하게 됐죠. 휴지 등 생필품은 많은데, 오히려 비누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라 급히 만들어 둔 비누들을 포장해 보냈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화장품제조업 등 자격증을 따고



루트공방을 운영하는 우혜진 아로마테라피스트.



몰드에 넣은 비누.



천연 색소와 남은 비누를 모아 만든 비누.

허가를 받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우시고 어려워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녀는 “모두가 비누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학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에 비누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바른

길잡이가 되고자 현재 체험 수업과 창업, 자격증 강의도 함께 병행 중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마음과 신체적 거리마저 멀어지고 있는 지금, 소중한 이들을 위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비누를 통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멀어진 사이까지 말끔히 씻겨내려가지 않을까. /오지현 기자

아시아 이야기 기반 어린이공연 제작 공모

ACC, 전문공연 팀 등 대상 내달 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ACC 아시아스토리 어린이 콘텐츠 제작 공모’에 들어갔다. ACC는 국내 어린이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작팀을 선발, 지원하는 ‘ACC 아시아스토리 어린이 콘텐츠 제작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ACC는 아시아가 직면한 환경과 평화, 인권 등 동시대적 메시지나 아시아 신화, 전설, 민담, 설화, 민요, 역사, 전래놀이 등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어린이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관심 있는 4개 팀(창작자)을 모집한다. 대상은 어린이 공연을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개인(그룹) 또는 단체로 연극동아리 등 아바

추어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극과 무용, 전통예술, 다원 예술 등 장르 제한은 없다. 1차 서류 심사과 2차 PT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2,500만원의 작품 개발비와 출연료를 지원한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인큐베이팅 컨설팅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작품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은 9월 중 하루 2차례 시범공연에 이어 내년 어린이극장 정규 프로그램에 편성돼 무대에 오른다. 4월 20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이메일(performance@aci-k.kr)로 제출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온라인 연주 나눔 시작한 금호아트홀

‘유스퀘어 클래식’ 채널 통해 공개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이 코로나19로 지친 클래식 팬들을 위해 온라인 연주 나눔을 시작했다. ‘온라인 연주 나눔’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재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연기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바깥 활동까지 자제하는 클래식 팬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스퀘어 금호아트홀과 인연이 있는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이번 희망 클래식 릴레이는 유튜브와 팟캐스트(팟빵)에 개설된 음악 채널인 ‘유스퀘어 클래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호아트홀 관계자는 23일을 시작으로 약 두달 간 매주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첫 순서는 호신대 교수배이스임해철의 무대로 꾸며진다. 그는 이날 차이코프스키의 가곡과 베르디 오페라 아리아, 한국 가곡 등 총 세 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호 주니어 콘서트 시리즈 1회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최현호, 우리 지역 전문 연주 단체인 앙상블 마주엘의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관계자는 “많은 연주자가 기쁜 마음으로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이번 희망 클래식 릴레이가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재미진 전남’



록

김현호

새벽 그림 만나
시 한 편 짤는다
그림의 떡 사라지기 전에
록 짤 먹는다

중흥 정상에 우뚝 서다!

열손가락 없는 장애를 딛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산악인 김홍빈 대장,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역경을 딛고 정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정신, 바로 중흥S-클래스의 정신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3번째 봉우리 가셔브롬 (8068m) 정상에 오른 김홍빈 대장(2019. 7. 7)

www.s-class.co.kr

S-CLASS

중흥S-클래스

목포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 |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7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대상
- 2016 매일경제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부문 주거용 최우수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브랜드대상
- 2015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 기자재 대상 |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 2014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상